

참 잘 한 선택

유 은경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집안 사정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막내는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인데, 늘어난 빚으로 예쁜 옷 하나 마련해주는 것도 벅찼다. 큰 애는 낮이면 커피숍 아르바이트에 저녁이면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취업 준비를 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대학 생활의 꽃은 방학 아르바이트라고 하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

작은 애는 씩씩하게 아침을 먹고 새벽부터 종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스물 넷에 남편을 만나 순박한 매력에 빠져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한 후, 스물 이 될 때까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나에게 바깥일은 막연한 두려움 그 자체였다.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데,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들에게 너무도 미안했다. 이제는 자신들도 성인이라며 괜찮다고 하지만, 한창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싶을 나이에 가정 형편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부모로서 제대로 된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대론 안 되겠어. 애들, 남편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하자!’ 이렇게 시작된 나의 장년 취업기는 쉽지만은 않았다. 나이도 이미 스물이 넘은데다가, 나에게 주어진 몇 가지의 선택들은 청소, 주방일 뿐이었다. 사실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지만, 허리가 일찍이 좋지 않아 조금만 무리해도 병원을 전전해야했던 까닭에, 장시간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일들은 힘들 것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주방 일들을 지원해 보았지만 경력이 없던 탓인지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했다. ‘맞아, 나같이 평생 전업 주부로 살아온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설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애들이랑 남편을 오히려 도와주는 거야.’라고 씩씩히 단념을 해나가던 찰나에, 마지막 희망으로 지원한 집 근처의 국공립어린이집 급식 보조 일에 운이 좋게도 합격되었다.

평소 아기들을 예뻐하고 조카들도 간간히 봐주었던 터라 이곳에 취직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의 합격 소식에 날아갈 듯이 기뻐했다. ‘그래,

나도 이제 우리 가족 살림에 보탬이 되는 거야! 남편도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라고 못 할게 뭐람? 열심히, 감사히 일해 보자!'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식단 재료가 배달이 되는데, 내가 맡은 일은 영양성분이 제일 잘 배합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한 구청의 어린이집 식단을 토대로 영아들을 위한 점심과 간식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세 살, 네 살배기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니, 더욱 더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말이면 집에서 미리 식단을 혼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원래라면 9시까지 출근을 하면 되었지만, 아이들에게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잘 먹이고 싶은 마음에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요리를 준비하곤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몸은 조금 고단해도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사르르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으로 배달된 재료의 양이 평소와 달리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다. 특히 소고기의 양이 유달리 적어 보였다. 이후 며칠 동안의 재료 역시도 원래의 배달되어야 할 양보다 조금씩 부족해 보였다.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누가 훔쳐가나?'

며칠 간, 지속되는 부족한 재료의 양에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마침내, 배달 시각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출근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결심했다.

그리고 출근한 다음 날 새벽, 어린이집에서 나는 뜻밖의 인물을 보았다. 원장님이 배달된 재료들의 1/3 정도를 다른 봉투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원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나는 황급히 달려가 원장님께 물었다.

"어머, 선생님, 일찍 나오셨네요. 반찬들이 항상 남아서 재료를 미리 조금 가져가려고 했어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원장님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식 정량이 배달되어오는 건데,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면 되나요?"

나는 화들짝 놀라 되물었다. 그러자 원장님은
"그렇죠, 그렇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다 먹지도 못 하는데, 선생님도 조금
들고 가요. 다들 그렇게 해요."
라며 오히려 나에게 설득하는 것이었다.
나는 원장님의 너무도 당연하다는 태도에 되려,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
지, 다들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
다.

다음 날이 되자, 원장님은 더욱 당당하게 일정량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나
역시 고민되기도 했다. 세 살배기 아이들이 다수인 우리 어린이집에선 많은
양의 반찬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실로 컸던 것이다. 게다가, 내 두 딸들을 생각하면 더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맛있는 반찬 하나 제대로 챙겨준 기억이 없었
기에 이런 마음 한 편이 미안함은 특히 떡볶이, 돈가스 혹은 갈비탕같이 딸
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식단으로 나올 때에 더욱 커졌다. '그래, 어차피 남
으면 음식물 쓰레기인데, 집에 조금 들고 간다고 해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니
고.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 틀림없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배
달되어지는 재료들은 그곳에 등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특별히
정부에서 80%를 지원해준다고 들었다. 그렇게 지원받은 급식비를 통해 들
어오는 식재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금횡령과 다름없어 보였다. '원
장님은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신고해야하나? 그런데 신고하게
되면, 내 직장은? 해고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딸들한테 용돈
이라도 줘야지. 한 번만 눈감아 보자,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돼.'라며 내
양심의 소리를 애써 합리화시켰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은 며칠 째 가시지 않았고, 그 와중에 나는 원장님의
또 다른 불법 행위들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제공
받은 어린이집의 교재와 교구를 본인의 손녀를 위해 상습적으로 빼돌렸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다. 물론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다. 또한 우리 어린이집의 천사 같은 아이들도 그만큼 소중했다. 어쨌건 원장님이 빼돌린 식재료와 교구와 교재만큼, 아이들은 더 먹을 수 있음에도 덜 먹고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더 낮은 교육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또 '선생님, 항상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맡기러 오는 수줍은 새댁의 진심이 담긴 아침 인사는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을 믿고 제 분신 같은 자식들을 맡기러 오는 부모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번져갔다. 마침내, '만약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었다면,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라는 내 마음의 외침은 양심에 경종을 울렸다.

이에, 지체할 것 없이 어린이집 원장님을 운영 비리, 보조금 부정 수령에 관한 내용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원장님이 보육 선생님들의 월급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일정량까지도 꾸준히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고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돈도 벌며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었던 내 인생의 첫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거지?'라는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불안감도 잠시 뿐, 신고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말은 내 양심의 선택을 다시 한 번 후회하지 않게 만들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렇게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급식·간식의 횡령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해도, 내 자식한테 불이익이라도 갈까, 일할 때 불이익이라도 올까, 쉬쉬하는 부모, 교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같이 양심적인 분들의 신고 하나하나가 비리 없이 깨끗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래야 부모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들을 맡기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척결하겠습니다. 참, 작년부터는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해 어린이집 공익신고 보상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선생님, 참 잘한 선택입니다.”

이 믿음직한 수사관의 작은 찬사는 나에게 뿌듯함, 그 이상의 보람을 선사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양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제도가 곳곳에 마련되어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일깨워주었고,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나의 신뢰도도 높여주었다.

무엇보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더욱 당당한 엄마가 되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후에 미래의 내 딸들의 자식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 나아가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작게나마 일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특별히 어렵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다.

순간순간의 평범한 '참 잘한 선택'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깨끗한 사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